광주일보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문요일 17

유유자적 배우며 듣는 '클래식'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연주 모습.



비올라 연주자 김상진

북부의 거장 그리그와 시벨리우스부터 남부의 거인 파가니니, 베르디까지…

클래식 명장들의 음악을 입문자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설을 곁들인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주관하고 광주예술의전당이 주최하는 GSO 오티움 콘서트 Ⅲ, 'South vs North'가 오는 30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2회에 걸쳐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유럽 북부에서 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그리그와 시벨리우스, 남유럽과 지중해 의 대표 음악가 파가니니와 베르디의 작품이 연주 될 예정이다. 남·북부의 대표적 작품들을 모두 담 아내는 풍요로운 얼개가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특히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언과 비올리스트 김상진이 협연자로 나서며, 작품과 함께 연주마다 해설을 덧붙이는 프로그램 기획은 클래식 입문자 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

연주회 제목의 '오티움(Otium)'이 라틴어로 '유유자적하며 배움을 즐기는 생산적 여가활동'을 의미하듯, 이번 공연은 남북음악의 이질성을 넘어 양대 음악가들의 선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유럽의 북부 음악가 그리그와 남부의 거장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III 30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개최 파가니니·베르디 등 거장 음악 감상

파가니니,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베르디의 음악이 차례로 연주되고 끝으로 다시 북부 음악가인 시벨 리우스 순으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페르귄트 모음곡 1번'은 그리그가 노르웨이의 문호 입센의 5막 극시 '페르귄트'의 부수음악으로 완성했던 작품 26곡 중 8곡을 간추려 재구성한 관현악 모음곡이다. 북구의 감성과 서정이 전편을 장식하는 명곡으로 노르웨이 음악을 상징하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이탈리아의 대표 작곡가 파가니니의 '기타 4중주 제15번'을 비올라와 오케스트라 협주곡 버 전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이 협연한다.

이 곡은 이탈리아 민속곡에서 영감을 받아 여유 롭고 투박한 리듬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비올라 가 크게 활약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비올 라-현악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편곡돼 연주됐다.

계속해서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서곡이 연주 된다. 베르디 음악에서도 최초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이탈리아 극작가 테미스토클레 솔레라가 성서를 바탕으로 쓴 대본을 토대로 탄생한 곡이다.

오페라 '나부코'는 성경 속 서사인 느부갓네살 왕 내용을 모티브로 전개되는 작품으로 애국적인 주제와 합창으로 당시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던 밀 라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공연의 대미는 북부의 음악가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가 장식한다. 1899년 당시 러시아의 압제에 시달리던 핀란드 당대인들의 시대적 저항정신을 메타포한 곡으로 시벨리우스는 정치색을 교묘하게 숨겨 이 작품을 발표했다.

한편으로 '핀란디아'는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상 기하는 측면도 있다. 수세기 전 음악이 시대를 초 월해 건네는 시의적 메시지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 께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 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S석 2만원, A 석 1만원이며, 8세부터 입장 가능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세계 '발레 여왕' 오른 강미선

유니버설 21년 활동…무용계 아카데미상 '브누아 드 라 당스' 수상

어렸을 적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의 내한 공연 녹화 영상을 하염없이 돌려봤다는 무용수 강미선 (40)이 마침내 '발레 여왕' 자리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 시상식에서 중국 국립발레단의 추윤팅과 함께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거머쥔 강미선은 꾸준함으로 유니버설발레단에서 20년 넘게 활동해 온 수석무용수다.

유니버설발레단은 국립발레단과 함께 우리나라 를 대표하는 양대 발레단으로 강미선은 2002년 연 수 단원으로 입단해 21년간 활약 중이다. 인생의 절반을 유니버설발레단에서 보낸 셈이다. 국내 발 레계에서 한 발레단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발레리 나는 드물다.

강미선은 8살에 발레를 시작해 선화예술중학교 에 진학했고, 1997 한국 발레협회 콩쿠르 회장상 을 타며 주목받았다. 이후 1년 만에 선화예술고등 학교를 수료했고, 미국 워싱턴 키로프 아카데미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유니버설발레단에서는 '점프' 없이 무용수 승급의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코르드발레 (군무)부터 드미솔리스트(2005~2006), 솔리스트(2006~2010), 시니어 솔리스트(2010~2012)를 거쳐 2012년 수석무용수로 승급했다.

발레리나 가운데는 바로 솔리스트로 입단하거나 1년 만에 승급을 잇달아서 하면서 바로 주역을 꿰차기도 하지만, 강미선은 '대기만성'형에 가깝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연습벌레'로 통한다. 유니버설발레단의 거의 모든 작품에 출연하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졌다.

그래서인지 강미선은 어떤 작품에서든 안정적 인 춤을 보여주는 무용수로 정평이 나 있다. 화려 한 테크닉의 안무도 여유 있게 소화하는 데다 무대 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도 대단해 팬들 사이에서 는 '갓(god)미선'으로 불린다.

강미선의 '발레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러시아 출신의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인 남 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다. 2014년 결혼한 두 사 람은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춘향', '심청', '지젤' 등 다양한 작품에서 때로는 설렘이, 때로는



애절함이 담긴 연기를 보여주며 부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강미선은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세대 워킹맘 발레리나' 다. 사실 무용계에서는 최근까지도 아무리 잘나가 는 무용수라도 출산은 은퇴로 여겨졌다. 지금도 워킹맘 발레리나는 강미선을 비롯해 국립발레단 의 김리회, 유니버설발레단의 손유희, 한상이 등 손에 꼽는 수준이다.

강미선은 원래도 풍부한 표현력을 자랑하는 무용수지만, 출산 이후 더 원숙한 연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난해 선보인 '오네긴'에서는 초연 때부터 맡아온 주인공 타티아나 역을 더욱 원숙하게 소화하며 "타티아나 그 자체"라고 평가받았고, 올해 3월 '미리내길'에서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의 애절한 그리움을 먹먹하게 그려냈다고 호평받았다.

'브누아 드 라 당스'까지 거머쥔 그가 앞으로 무대에서 보여줄 춤에 기대가 쏠린다. /연합뉴스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저작권 교육

문체부, 예비 창작자 5500명 대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의 저 작권 지식을 높이고자 연말까지 총 5500명을 대상 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4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약 2000명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달 기준 2018명이 참가해 5500명까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문체부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크쇼 형식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가진 창작자와의 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작가들이 함께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MZ세대 예비 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현재까지 16 개 학교 1364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와 협력해 33개학교, 예비 창작자 2700여 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교육받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

사한 결과 95% 이상이 교육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강사와 작가가 함께하는 이야기 쇼형식의 교육 방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박보균 장관은 "창작자는 물론 대학생 등 예비 창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은 필수과목이며, K-컬처 의 확장을 위해서도 저작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 다"며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우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19일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시 전문지 '상상인' 선경작가상 공모

시 50편 이상 9월20일까지

시 전문지 '상상인'이 '제1회 선경작가상'을 공 모한다. 상금은 500만원.

응모 자격은 등단시인으로 시 50편 이상을 오는 9월 20일까지 한글파일로 작성해 메일(ssaangin @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보낼 때는 응모 작품 맨 앞장에 제목, 약력(이름, 연락처, 주소), 목차 순로 보내면 된다. 메일 제목에 응모부문을 기입해야 하며 선경문학상과 중복 투고 가능하다.

상상인은 이번 공모 의미에 대해 "문장을 지키는 작가를 위해 상상인과 선경산업은 작가의 영역을 지키고자 한다"며 "선경작가상 공모에서 오랜 상상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경작가상 운영위원회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공모는 선경산업이 후원한다. 발표는 오는 9월 말 개별통보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 선경산업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학상 수상 작품집은 도서출판 상상인 기획시선으로 발간되며 당선작은 상상인 2024년 봄호에 게재된다.

_ _ _ _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979 m² (296.14평)

■ 건물: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